

“열심히 사신 분인데...” “나는 어떡하라고” 다시 눈물바다

참사 나흘만에 영면...유족·지인 눈물속 배웅 유류품 인도 시작된 무안공항 곳곳 대성통곡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5일째인 2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A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유가족

들과 고인의 마지막 배웅해 함께한 지인은 A씨가 운구된 후 광주 북구 영락공원으로 이동했다.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장례복을 입은 고인들은 고인이 잠든 관을 천천히 들어 화장

터로 옮겼다.
화장 전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고인에게 인사와 함께 애도의 말을 건넸다.
고개를 떨군 채 애도의 말을 들던 유가족과 지인들 중 몇몇은 서로에게 기대 눈물을 터뜨렸다.
화장장으로 들어간 고인을 허망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유골함을 받아든 뒤 자리를 떠났다.
A씨의 배웅에 함께한 한 지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너무 나안타깝다”고 애도했다.
A씨 외 다른 희생자 2명에 대한 발인도 이날 이뤄졌다.
같은 날 정오께 무안국제공항, 유가족들은 식구들이 남긴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참사 현장으로 다시 향했다.
“마지막 흔적”이라도 간직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스에 오른 유가족들은 유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돌아왔다.

희생자마다 남긴 물품은 달랐으나, 돌려받은 건 주인이 명백히 확인되는 여권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정도로 비슷했다. 일부 유가족의 손에는 네임택이 든 여행용 가방도 들려 있었다.
남기고 간 것이 꽤 버린 물건들을 받아든 유가족들의 마음엔 다시 한 번 비통함이 차올랐고 통곡으로 이어졌다.
한 유가족은 텐트 밖이 떠나기도 두렵다. “나는 어떡하라고”만 되뇌었다.

전남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이날은 오후 8시까지 유류품을 인도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다음 날 다시 이 어가기로 했다.
또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류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항 옆 유류부지까지 수색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 조각이나 유류품은 DNA 검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친 뒤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안재영·주성학 기자



국토부 브리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박스 분석 끝나도 수개월 전망

●사고 조사 결과언제나이나

통상 분석에 3개월 소요...FDR 커넥터 분실 기간 길어질 듯
과거 사고는 11개월-2년반 걸려...국내사고라 조사 절차 줄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와 비행 기록장치(FDR)로 구성된 블랙박스는 손상이 없을 경우 분석이 끝날 때까지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 FDR은 커넥터 분실로 미국에서 분석이 필요해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도 자료 수집,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조사 마무리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 중 하나인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CVR에는 조종실 내 승무원 간의 대화, 관제기관과의 교신 내용, 조종실내 각종 경고음 등이 기록된다. 엔진이 정지될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녹음이 담겼는데 모두 전환에 성공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다른 블랙박스인 FDR은 커넥터 분실된 상태로 발견돼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F

DR는 곧 미국 워싱턴의 교통안전위원회(NTSB) 본부로 옮겨 분석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가량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커넥터 분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번 사고에서는 분석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고 봤다.
블랙박스가 조사에 활용되면서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번 참사의 조사 주체를 맡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있었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국적기에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희생자분들이 거의 다 우리 국민이라 미국 NTSB의 타국 정부나 조사기관 등과 협의해야 할 과정이 없어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족·사고수습 관계자 심리 회복 지원

전남도, 트라우마 증상 완화·일상 복귀 도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사고 수습 관계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심리적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가족, 사고 수습 관계자, 도민 등이 전문가 개입을 통해 트라우마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 생활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사고 수습 관계자에 대한 심리 회복은 무안공항과 피해자

가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대 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기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연결,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민 등 불특정 다수의 경우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도청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도내 어디서든지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찾으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심리상담 전화(1577-0199)도 운영하고 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터치마인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정신건강 자기진단, 상담·치료 기관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도민에 대해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8회분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하루 빨리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김재정 기자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키로

진상규명·유족지원·추모사업 추진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

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가 책임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보다 특위 차원의 실질적 유가족 지원 방

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부, 유가족 ‘휴가 협조’ 사업장에 공문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친척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가족이 휴가 등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장례 등을 위해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유가족들의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1차 발송은 전날까지 신청한 78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도 대상이다.
추후 복귀 시 장기간 휴가·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담겼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